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중-93863호

SINCE 1989 창간 31주년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21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음력 8월 22일)

한·중 EEZ내 연중 조업 가능해 지나

해수부, 중국과 협상안에 제주도 요구 의제안으로 채택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 6월 결렬이후 4년넘게 표류중
도내 연승어선 150여척 조업 못해 1000억원 이상 피해

한·중 어업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일 어업협상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도내 어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한·중 양국 간 2021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국장급 준비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사전의견을 조율하는 회담 성격의 회의로 양국은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수역의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함께 조사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도내 어선 한·중 EEZ내 조업금지 기간을 현재 2개월(8~9월)에서 1개월(9월)로 단축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해수부는 이보다 더 진전된 의제안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 제주어선 한·중 EEZ내 연중 조업 허용을 의제안에 포함시켰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에 반해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4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연승어선 150여척은 서귀포 남쪽으로 160㎞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고 500~600㎞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 등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연승어선 등 150여척이 갈치 등 1만여t을 잡지못해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어선들이 한·중 EEZ내에서 연중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요청했다"며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2차 국장급 준비회담과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 회담에서 협의 내용을 조율한 후 주요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선 "매년 일본 측에서 장·차관 등의 명의로 회담을 요청하는 문서 등을 보내고 있으나 일본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어선들의 일본 EEZ 입어가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학교 등교수업 밀집도 2/3로 완화

도교육청 오는 12일부터 시행
초중고 100명·6학급 이하
58개교는 전체 등교도 가능

제주 학교 등교수업 일정이 '추석 이전'으로 돌아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 밀집도를 2/3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학생 밀집도를 2/3로 완화했지만,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밀집도를 1/3로 강화하는 '학사 운영 특별조치 방안'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글날 연휴(이달 9일~11일) 동안 다시 한 번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밀집도를 당분간 1/3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실시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돌봄 우려 ▷사회성 함양을 위한 등교수업 확대 필요 등을 이유로 12일부터 밀집도를 2/3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도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밀집도를 2/3로 완화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학교는 전체 등교도 시행할 수 있다. 대상 학교는 초 48교(제주시 21·서귀포시 27), 중 9교(제주시 6·서귀포시 3), 고 1교(과학고) 등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 원칙을 이어간다. 특수학교도 기존대로 밀집도 조치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며, 유치원의 경우 7학급 이상 유치원은 2/3 밀집도 조치, 6학급 이하 유치원은 전체 등교 또는 2/3 조치를 할 수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감동을 빚다 내일을 잇다'

제59회 탐라문화제 개막
오는 11일까지 5일간 열려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

7일 제주아트센터에서 무관중으로 열린 제59회 탐라문화제 개막식에서 코로나로 변화된 세상을 담은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탐라 감동을 빚다, 내일을 잇다'를 표어로 제주도와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제주예총, 회장 김선영)가 주최하는 제59회 탐라문화제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달 11일까지 5일 동안 열리는 이번 탐라문화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치른다. 탐라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제주어 축제, 무형문화재 축제는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참여 축제 중 하나인 '탐라는 복주멩기'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험 도구를 제공해 축제 기간 SNS에서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했다.

공연문화축제인 드라이브 인 콘서트·영화관은 새별오름 주차장에서 마련돼 차 안에서 공연과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공연은 사전 축제 분위기를 돋우며 지난달 11일 시작돼 축제 기간에도 금·토요일 공연으로 이어진다.

예년 탐라문화제 개최 장소였던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 일대에선 미디어아트전 '탐라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첫날 개막식은 제주아트센터에서 무관중으로 펼쳐졌다. 고난을 잠재우는 전설상의 피리인 '만파식적'에서 따온 '탐라식적'이란 주제 아래 코로나19로 멈춘 제주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민들을 위로하며 내년 60회 탐라문화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59회 탐라문화제 주요 프로그램은 제주예총 유튜브 채널로 볼 수 있다. 제주예총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16개월째 공전 제주시설공단 향방 촉각

도의회 10월 임시회 상정 논의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제주 시설공단' 설립 향방이 이달 중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및 행감 관련 전략 마련과 제주시설공단 관련, 그 밖에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좌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기자간담에서 '시설공단 조례안' 상정 여부와 관련 "상정 이전에 의원 총회를 열도록 하겠다"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조례안이 10월 임시회에 상정될 경우 폐회하는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시설공단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공단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제출했지만 당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수정가결)했지만 전임 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설공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10월 9일 한글날·토·일요일 신문 쉽니다